

음팔라 공동체와 함께 한 두 가지 경축 행사



우간다의 음팔라 공동체 수녀들은 수련자들과 함께 2025년 1월 26일 일요일에 마련한 모임에 13세에서 20세 사이의 젊은 남녀를 초대했습니다. 수녀들은 먼저 음팔라 본당 내의 여러 하위 본당에 공지문을 보내어 해당 연령대의 모든 청소년을 초대했습니다. 메리 줄리엣 수녀와 안나 마리아 수녀가 오후 2시에 행사를 시작하기 위한 소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청소년들은 수녀들과 교류했고, 또 다양한 그룹에서 서로 어울렸으며, 이를 통해 우리 수녀회와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수녀들에게 기도, 성소, 교리 교육, 그리고 일반적인 삶의 다른 측면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매우 보람 있고 열린 교류였습니다. 두 수녀가 청소년 환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통 복장인 피그미로 분장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 프로그램에 매우 흥분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게임을 통해 수녀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올렛 마리 수녀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준 후에는, 모두들 2월에 열리는 다음 모임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멋진 청소년 모임을 하는 동안, 본당 교리 교사인 마리아와 카위야도 청소년들과 합류하여 모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축하 행사는 2025년 1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수녀들과 수련자들은 고전적인 이태리 요리로써 라구 소스와 신선한 채소를 곁들인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이는 노트담 수녀들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다른 대륙의 전통 음식을 공유하는 경축년 실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식사 전에 수녀들은 함께 모여 성령 총대리구의 경축년 노래 두 곡을 불렀습니다. 수녀들은 이 활기찬 날을 지내며 우리가 가진 독일의 배경과 기원을 상기했습니다.